

##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졸업을 앞두고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며 작은 등불을 밝힌다.

익산 산림조합장 | 김 근 섭



작년 1월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입학권유를 받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학하게 된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보고서를 쓰고 있다니...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입학에 망설였던 것은 나의 성정 때문이었다. 모든 학업에서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매번 성실히 참여해왔지만, 현직(익산산림조합장)을 수행하면서 과연 산림최고경영자과정도 개근으로 졸업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 망설였으나, 입학 후 매 교육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졸업을

앞 둔 지금 결국 이번에도 해냈구나 하는 즐거움으로 이 보고서를 쓴다.

처음 입학식을 위해 공주로 향할 때는 내 마음 속에 우리 임업의 영원한 숙제인 산림소득원 창출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소망과 어떠한 새로운 인연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설렘이 있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업소득의 소망은 작은 돌파구를 찾은 것 같고 내 마음속의 설렘은 소중한 인연들을 만남으로써 결실을 맺었다.

나는 한국산림아카데미 제1기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한국임업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지난 1년간을 회고해 본다.

우리나라의 산주들이 산을 소유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조상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고 조상의 묘소 때문에 대면적은 종종임야가 대다수이며, 최근 들어 투기목적 등으로 임업을 영위하고자 소유한 것은 극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또한 투자기간이 길고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 임업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30년 넘게 임업에 종사하다가 지난 1년 동안 산림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하여 학습한 것을 토대로 임업소득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림이 전 국토의 65%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1차 산업 중에서도 제일 낙후되어 업(業)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현재 임업에서 얻어지고 있는 산림소득도 주산물인 목재보다는 산림부산물(버섯, 산약초, 산채, 수실류 등)의 생산으로 명맥을 유지하며 산림의 가치를 공익적 가치인 산소, 물의 공급원, 환경의 중요성, 풍수재해의 방비와 휴양 생태기능 등으로 대변하는 것이 사실이며 농·축·수산업과는 달리 임산물을 거래하는 시장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임업의 현 주소이다.

그동안 우리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 교육은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여 산림소득을

실현시키고 진정 산림을 업(業)으로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의 임업 선진지와 원우가 경영하는 현장을 찾아 이론 및 현장학습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는 동시에 현장 경영진의 성공과 실패사례를 통해 토론하면서 해법을 찾아 고민하고 지혜를 짜며 설 틈 없이 한 해를 보냈다. 현장학습에 매료된 우리들은 무더운 여름도 잊고 매주 현장학습을 강행하는 열정으로 보낸 지난 1년이었던 것이다.

지난 1년간 현장학습을 통해 얻은 것은 규모에 알맞은 경영을 해야 하고 우리 임업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이용해서 소득원 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회임기가 길다는 것이 임업이 가지고 있는 단점인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복합경영을 통해 회임기를 앞당기고 연차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품목을 적정한 규모로 배치하여 경영하면 될 것이다. 반면 산림은 청정휴양이 가능한 지역으로 웰빙식품 생산, 산약초 및 산채 생산 등 도시민들의 기호에 알맞은 산림부산물 생산, 산림 문화체험 및 휴양공간으로 활용하여 소득원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며 또한 유휴 공간에는 조경수묘 등을 생산하여 중기 소득원으로 배치한다면 훌륭한 임업경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우리가 항상 경계하고 고찰할 것은 생명산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생명산업은 입지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무조건 남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나의 입지 여건에 맞도록 투자여력을 고려하고 주변 시장여건을 감안하여 철저히 판매목표를 설정·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채, 산약초, 버섯, 수실, 조경수 등을 생산하는 사람은 전국에 수없이 많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다르다. 산채도 그냥 산채가 아닌 특별한 산채를 생산하고 버섯도 그냥 버섯이 아닌 명품버섯을 남이 생산하지 못하는 시기에 생산하는 기발함을 보이고, 이들이 키우는 조경수는 수려하여 한 번 보면 안사고는 못 배기도록 아름답고 품위 있는 그러한 명품을 생산한다. 우리는 산림CEO이다. 따라서 남들도 다 내놓는 그저 그런 상품이 아닌, 무엇을 만들던 명품으로 만들어내야 하고 가격은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지난 1년간 현장학습을 통해 깨우친 교훈이 아니었나 싶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1차 산업의 생산으로는 경쟁력이 없고, 2차 산업인 가공, 3차 산업인 유통과 마케팅, 4차 산업인 휴머니즘이 결합된 생산을 통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임업인들은 그동안 우리가 생산한 임산물을 농산물 시장에 다 내어 주었다. 고사리·두릅·취나물 등 산채류, 밤·은행·대추·감·호두 등 수실류, 표고·목이 등 버섯류, 산양삼·당귀 등의 산약초 등 임산물을 농수산 시장에 판매한 결과 일부 인기품목은 농업 쪽 품목으로 고착되고 있어 우리의 입지가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개척해야 할 시장은 고품질 소량 생산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 판매시장이며, 이를 통해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웰빙을 표방하는 맞춤형 청정 먹거리와 계절별로 맛과 멋을 풍미할 수 있는 임산물을 생산·판매하여 소비자가 믿고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임산 먹거리의 시장이다.

우리가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 임업소득의 길이 요원할 수도 가능할 수도 있다. 나는 긍정의 힘을 믿으며 임업소득 향상의 길에 작은 불을 밝혀두려고 한다.

사실 처음 입학식 날 원우들 각자의 자기소개를 들으며, 과연 수업진행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위로는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파주에서 아래로는 경북 경산과 전라도 광주까지 전국 각 지에 이르고, 각 분야의 CEO들이기 때문에 개성이 강하며 연령층과 직업군, 성별이 달라 교육생간의 단합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몇 번의 수업을 받으며 기우에 불과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서로 다른 직업군은 다양한 정보의 제공으로 폭넓은 지식의 터널로 작용하였고, 원우들의 뜨거운 학구열은 원거리 현장학습에도 70~80명씩 참석하는 기염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나누고 배려하는 미덕으로 승화하여 모든 생명을 품고 사는 산림의 자비를 꼭 빼어 닮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인정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인연이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지난 1년 교육과정에서 느낀 점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심도 있는 학문으로 열과 성을 다한 가르침의 고마움도 있지만, 우리 원우들이 행정을 필두로 와인, 은행나무, 호두, 산양삼, 버섯류, 수실류, 조경수 및 산지개발과 복합경영, 컨설팅, 산림휴양 등 다양한 분야의 명장들이라는 점이 놀라웠고 현장위주의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쌓인 연륜과 산지식은 어디에서도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분야의 보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어느 분야보다도 현장상황이 각기 다른 우리 임업은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나, 전국 각지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산림최고경영자과정 졸업생으로 등으로 구성된 컨설턴트 모임은 모든 문제점에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한국산림아카데미 최고경영자 원우 여러분!

여러분은 입학 전에도 산림CEO이고 현재와 미래는 우리 산림아카데미의 등불이고 보배입니다. 당신들이 밝혀 놓은 등불 밑에는 우리의 열정보다 더욱 뜨겁게 학구열로 뭉친 2기 원우님들의 배움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우리가 밝힌 한국산림아카데미의 등불이 한국임업의 햇불로 활활 타오를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우 여러분! 지난 1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제와 돌이켜보면 배움에 앞서 한국산림아카데미의 훌륭한 원우님 한 분, 한 분과 소중한 인연을 맺었구나 하는 생각에 기쁩니다. 또한 우리의 만남은 학우를 넘어 가족과 같은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원우님들의 앞날에 발전을 기대하면서 한국산림아카데미 조연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설동호 원장님과 교수진 특히 우리 수업을 뒤에서 준비하고 이끌어주신 안진찬 부원장님과 신동선 팀장, 이수연 팀장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졸업보고서를 맺습니다.